

85年度 에너지需給計劃

—動力資源部—

I. 84국내의 경제상황과 에너지 部門 評價

1. 국내외 經濟事情

가. 84世界經濟事情

—84년 상반기는 美·日 등 주요 선진국의 예상을 상회하는 강한 성장세로 世界經濟회복이 확산되었으며, 하반기에는 美國이 成長둔화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76년 이래 가장 높은 경제성장 이룩.

	83	83(당초)	84(實績추정)
• OECD 平均성장률(%)	2.6	3.5	4.75
美國성장률(%)	3.7	5.0	6.75
日本성장률(%)	3.0	4.0	5.75

—原油, 1次產品 가격약세로 선진국의 물가안정 지속

	82	83	84(推定)
• 인플레이션(OECD평균)(%)	7.8	5.3	5.0

—美國의 경기회복에 따라 세계무역은 상반기에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보호주의 강화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年平均으로는 크게 신장

	82	83	84(추정)
• 世界交易증가율(%)	△ 4.0	1.8	9.0

나. 84년 우리나라 經濟狀況

—84년 경제성장은 7.5%를 상회하는 건실한 성

장을 지속하였으며, 鑛工業부문은 14.1%의 높은 성장 示顯

	82	83	84
• 經濟성장률(%)	5.6	9.5	7.5
• 鑛工業성장률(%)	3.6	10.8	14.1

—물가안정과 꾸준한 국제수지의 개선

	82	83	84(추정)
• 都賣物價상승률(%)	2.4	△ 0.8	1.5
• 경상수지(億달러)	△26.5	△16.1	△ 14

主要經濟指標

	80	81	82	83	84
GNP成長率(%)	△ 5.2	6.2	5.6	9.5	7.5
(제 조 업)	△ 1.1	7.2	4.0	10.9	14.4
都賣物價(%)	49.3	11.3	2.4	△ 0.8	1.5
경 상 수 지 (億달러)	△53.2	△46.5	△26.5	△16.1	△14.0
失 業 率(%)	5.2	4.5	4.4	4.1	3.9

2. 84에너지部門 평가

가. 84에너지需給상의 특징

(1) 需要측면

(가) 源 別

● 石油소비의 현저한 둔화

—石油소비절약과 脫石油電源개발 추진으로 石油 소비는 1.9% 증가에 그침

	83	84(계획)	84(잠정)
• 石油需要증가율(%)	5.6	3.2	1.9

— 石油수요 둔화로 石油의존도의 감축

	82	83	84(잠정)
• 石油의존도(%)	58.0	56.2	52.3

● 年初 酷寒과 가정난방방식 개선으로 무연탄 수요와, 유연탄發電所 가동으로 유연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石炭이 에너지 증가를 주도

	83	84(계획)	84(잠정)
• 無煙炭需要증가율(%)	3.9	2.6	10.4
• 有煙炭需要증가율(%)	13.3	29.0	34.5
• 石炭의존도(%)	33.1	34.9	36.8

(나) 部門別

● 産業부문은 14.1%의 鑛工業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증가율은 4.9%에 그쳐 에너지 소비절약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줌.

	83	84(잠정)
• 産業部門에너지증가율(%)	6.1	4.9
• 鑛工業성장률(%)	10.8	14.1
• 彈性值(에너지증가율/鑛工業성장률)	0.56	0.35

● 수송 및 家庭·商業부문이 에너지소비증가를 주도

— 輸送부문은 높은 차량증가와 産業출하량 증가로, 家庭·商業부문은 年初 酷寒과 민간소비 증대에 기인

	83	84
• 輸送部門에너지증가율(%) ¹⁾ (車輛증가율)	9.0 (21.4)	17.7 (21.0)

• 家庭·商業部門에너지증가율(%) (서울지역 평균기온, °C) ²⁾	6.3 1.0	9.3 -2.3
---	------------	-------------

(2) 供給측면

● 국제 에너지市場의 약세 지속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 에너지가격 弱勢等에 의한 에너지輸入金額 감축으로 국제수지개선에 기여(計劃대비 2億달러감축)

	83	84(계획)	84(잠정)
• 에너지輸入額(億달러)	65.9	69.7	67.6
• 原油導入單價(\$/B, C & F)	29.9	29.7	29.04

● 국내 에너지가격 안정에 따라 국내물가안정에 기여

— 石油가격인하: 연간 평균 1.3% 인하 (도매물가 0.17% 인하 효과)

• 84. 3. 8: 평균 0.64% 인하

• 84. 11. 22: 나프타 7.1% 인하

— 電力요금 延滯料 인하(10%→5%): 電力요금 0.22% 인하 효과

— 煉炭가격은 전년과 동일

• 84. 5. 17: 原炭 2.82% 인상(5級炭 기준)

• 煉炭가격은 凍結

— 유연탄 導入單價는 3.2% 하락

나. 84에너지 需給實績

(1) 에너지源別 소비실적

—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8.4% 증가

	單位	1983			1984(暫定)		
			構成比(%)	增加率(%)		構成比(%)	增加率(%)
石油	千배럴	191,294	56.2	5.6	194,887	52.3	1.9
無煙炭	千톤	21,670	20.3	3.9	23,917	20.9	10.4
有煙炭	千톤	9,633	12.8	13.3	12,971	15.9	34.7
水力	GWH	2,723	1.4	35.8	2,357	1.1	△13.4
原子力	"	8,965	4.5	137.4	11,702	5.4	30.5
薪炭	千톤	8,492	4.8	△ 1.6	8,355	4.3	△ 1.6
(電力)	GWH	42,620	—	12.5	47,030	—	10.3
總에너지	千TOE	49,700	100.0	8.1	53,896	100.0	8.4
海外依存度(%)		74.8			75.8		

註: 1) 국제병커링을 제외한 국내수송용 증가율임

2) 84. 1/4分期 실적임

1984 부문별 에너지消費実績

(單位：千TOE)

	1983			1984(暫定)		
		構成比(%)	增加率(%)		構成比(%)	增加率(%)
産業	18,110	43.5	6.1	18,991	42.0	4.9
輸送 ¹⁾	5,483	13.2	9.0	6,640	14.7	17.7
家庭·商業	15,222	36.6	6.3	16,632	36.7	9.3
公共·其他	2,814	6.7	6.0	2,996	6.6	6.5
最終에너지計	41,629	100.0	6.5	45,259	100.0	8.7

註：1) 증가율은 國際병커링을 제외한 國內輸送用에너지 증가율임.

(가) 石油

● 石油소비의 현저한 둔화

—수송 및 暖房用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절약 및 發電用 연료대체에 따라 石油소비는 1.9% 증가에 그침

	83	84(계획)	84(잠정)
• 石油소비량(千배럴)	191,294	197,440	194,887
(증가율, %)	(5.6)	(3.2)	(1.9)
• 石油彈性値	0.59	0.43	0.25

—石油의존도는 크게 감축되었으며, 燃料代替로 有煙炭비중은 증가

	83	84(계획)	84(잠정)
• 石油의존도(%)	56.2	54.4	52.3
• 有煙炭의존도(%)	13.3	15.2	15.9

● 산업부문 石油소비는 鑛工業부문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둔화된 증가율 시현

	83	84(잠정)
• 산업용 石油소비(千BBL)	65,822	69,963
(증가율, %)	(4.2)	(6.3)
• 鑛工業 성장률(%)	10.6	14.1

—石油化學用 나프타 및 제품고급화를 위한 LPG 소비증가가 전체 산업용 石油소비증가를 주도(전체 增加分の 49% 占有)

* 産業부문 主要油種別 증가율(%)*

나프타	LPG	B-C	輕油	B-A
7.0	32.1	6.3	△ 0.7	△ 2.9

● 發電用 石油소비, 전년대비 23.1% 감소

	83	84(잠정)
• 發電用 石油소비량(千배럴)	48,708	37,472
(증가율, %)	(△ 1.9)	(△23.1)

—이는 脫石油電源開發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다른 것임

* 發電量 구성비 推移(%)*

	80	81	82	83	84(잠정)
• 石油	78.7	79.8	80.5	67.3	49.1
• 石炭	6.7	6.3	6.1	8.8	24.7
• 水力·原子力	14.6	13.9	13.4	23.9	26.2

● 차량 및 産業出荷 증가로 수송용 石油소비 20.8% 증가

	83	84(잠정)
• 수송용 石油소비량(千배럴)	38,745	46,791
(증가율, %) ¹⁾	(12.1)	(20.8)
• 産業出荷증가율(%)	16.4	14.2
• 車輛증가율(%)	21.4	21.0

註：1) 국제 병커링 제외하면 83년 10.2%, 84년 17.7% 증가임.

● 家庭·商業용 石油소비는 7.6% 증가(특히 1/4 분기중 酷寒지속으로 인한 난방용 소비급증으로 전체 石油소비 증가에 0.7% 포인트 기여함)

	83	84(잠정)	84.1/4
• 家庭·商業用소비량(千배럴)	20,926	22,524	7,939
(증가율, %)	(17.7)	(7.6)	(18.8)
• 서울 평균기온(℃)	1.0	-2.3	

(나) 無煙炭

● 家庭·商業用 연료고급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年初 酷寒 및 가정난방 방식 변화에 따라 無煙炭 소비 급증

	81	82	83	84(잠정)
• 無煙炭소비량(千톤)	21,413	20,865	21,670	23,917
(증가율 %)	(2.8)	(△2.6)	(3.9)	(10.4)

부문별 石油소비

	産 業	輸 送	家庭·商業	公共기타	發 電	計
消費量(千배럴)	69,963	46,791	22,524	18,137	37,472	194,887
증 가 율(%)	6.3	20.8 ¹⁾	7.6	6.1	△23.1	1.9
기 여 도 (%, 포인트)	2.2	4.2	0.9	0.5	△ 5.9	1.9

註: 1) 國際benchmark을 제외한 국내수송용 17.7% 증가

주요油種別 소비증가율(%)

揮發油	輕 油	부 탄	B-C油	프 로 판	燈 油	나 프 타	아스팔트
18.1	12.2	16.5	△ 9.3	35.6	5.1	7.0	23.2

* 家屋暖房方式 변화*

	80	83
• 煉炭보일러 비중(%)	20.6	38.0
• 薪炭아궁이 비중(%)	24.8	14.8

(資料源: 84에너지센서스 결과)

- 무연탄공급 및 가격의 안정지속에 따른 무연탄의 暖房燃料化로 민수용 무연탄의 季節間 수요차이가 확대됨.

(單位: 구성비, %)

	81	82	83	84 (잠정)
盛需期(1-3月, 10-12月)	67	66	74	75
非需期(4-9月)	33	34	26	25
연탄가격 ¹⁾ (원/個)	153	158	158	158

註: 1) 서울시 3.6kg 小型炭의 家庭渡 價格기준

- 84년중 無煙炭 생산량은 無煙炭 수요증대로 전년 대비 7.0% 증가한 21,249千톤임.

	81	82	83	84
생산량(千톤)	19,865	20,116	19,861	21,249
(증가율, %)	(6.7)	(1.3)	(△1.3)	(7.0)

(다) 有煙炭

- 84년중 有煙炭소비는 發電用 유연탄소비 급증과 製鐵用 소비증가에 기인, 전년 대비 34.7% 증가

	81	82	83	84(잠정)
• 有煙炭소비량(千톤)	7,434	8,503	9,633	12,971
(증가율, %)	(47.7)	(14.4)	(13.3)	(34.7)

- 一 發電用 소비량은 3,671千톤으로 전년 대비 5.7배 증가(83년 8월 이후 有煙炭發電所 4基 가동에 따른 것임)

	82	83	84(잠정)
• 發電用 소비량(千톤)	—	546	3,671
(전년대비, %)	—	—	(572.3)

- 一 製鐵用 소비는 전년 대비 8.5% 증가

	81	82	83	84(잠정)
• 製鐵用 소비량(千톤)	5,941	6,033	6,199	6,729
(증가율, %)	(49.0)	(1.5)	(2.8)	(8.5)

- 一 산업용 소비는 洋灰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1.0% 감소

	81	82	83	84(잠정)
• 洋灰用 소비량(千톤)	1,493	2,470	2,888	2,571
(증가율, %)	(42.9)	(90.7)	(16.9)	(△11.0)

(라) 電力

- 84년중 電力소비는 전년 대비 10.3% 증가

	81	82	83	84
• 電力소비량(GWH)	35,424	37,880	42,620	47,030
(증가율, %)	(8.2)	(6.9)	(12.5)	(10.3)

- 電力彈性值 1.32 1.23 1.32 1.37
- 1人當소비량(KWH) 915 963 1,067 1,159
- 최대수요는 8월중에 夏節期 冷房수요 급증에 기인, 전년 대비 15.9% 증가한 8,811千Kw임.

- 發電量은 전년 대비 9.9% 증가

	81	82	83	84
• 發電量(GWH)	40,207	43,122	48,850	53,669
(증가율, %)	(8.0)	(7.2)	(13.3)	(9.9)

에너지源別 發電구성비 변화

	81	82	83	84
石 油	79.8	80.5	67.3	49.1
無 煙 炭	6.3	6.1	6.1	6.0
有 煙 炭	—	—	2.7	18.7
水 力	6.7	4.6	5.6	4.4
原 子 力	7.2	8.8	18.3	21.8

● 電力수요 증가에 따라 總에너지 소비중 發電부
문 구성비는 23.6%에 이룸

	81	82	83	84(잠정)
發電部門 구성비(%)	20.7	21.7	23.6	23.6

(2) 에너지輸入실적

● 國際에너지가격 안정에 따른 에너지導入單價 하
락으로 에너지輸入代錢을 감축하여 국제수지 개
선에 기여(計劃對比 2 億달러)

	84	84계획	84(잠정)
• 에너지 輸入額(億달러)	65.9	69.7	67.6
• 原油導入單價(\$/B, C & F)	29.9	29.7	29.04
• 石炭導入單價(\$/T, C & F)	59.1	59.0	57.20

II. 85년 經濟 및 에너지展望

1. 世界經濟전망

— 세계경제는 85년에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나,
美國 경기둔화로 세계경제성장은 다소 둔화될
전망

	83	84(추정)	85(전망)
• OECD평균성장률(%)	2.6	4.75	3.0
美 國	3.7	6.75	3.0
日 本	3.0	5.75	5.0

— 세계교역은 보호주의 강화와 선진국의 성장둔
화로 84년보다 다소 둔화된 6% 증가 예상

	83	84(추정)	85(전망)
--	----	--------	--------

• 世界交易증가율(%) 1.8 9.0 6.0
— 原油價의 약세 및 1次產品가격 안정으로 물
가안정 지속 예상

	83	84(추정)	85(전망)
• 物가상승률(%) (OECD平均)	5.3	5.0	4.7

에너지 輸入실적

	單位	1983			1984			增 減	
		物 量	單價(\$)	金額(百 萬달러)	物 量	單價(\$)	金額(百 萬달러)	價格(\$)	金額(百 萬달러)
石 油	千배럴	197,896		5,902	201,301		5,815		△87
• 原 油	"	192,969	29.9	5,768	199,828	29.04	5,805	△0.86	19
內 需 用	"	176,199	29.9	5,268	178,819	29.12	5,207	△0.78	△61
貨加工用	"	16,770	29.9	500	21,009	28.44	598	△1.46	98
• 石油製品	"	21,697	29.2	634	22,482	27.04	608	△2.16	△26
石 炭	千톤	10,872	59.1	643	13,741	57.20	786	△1.90	143
• 無 煙 炭	"	813	63.5	52	804	55.28	44	△8.22	△ 8
• 有 煙 炭	"	10,059	58.8	591	12,937	57.35	742	△1.45	151
製 鐵 用	"	6,034	68.0	410	6,918	67.12	466	△0.58	56
發 電 用	"	847	46.0	39	3,388	46.52	158	0.52	119
燃 料 用	"	3,178	44.8	142	2,631	45.00	118	0.20	△24
우 라 늑	톤U	111		42	134		157		115
計	百萬달러		6,587			6,758			171
• 對總輸入比重			25.1			24.5		△ 0.6	
• 石油輸入의對에너 지輸入비중			89.6			85.9		△ 3.7	

註: 1) 石油에는 제품과 原油中 內需用만 포함.

2. 世界에너지 展望

가. 石油市場 전망

● 石油수요 回復勢 둔화 예상

	82	83	84(추정)	85(전망)
• 자유세계石油수요 (百萬B/D)	45.2	44.4	45.8	46.3

— 국제高金利持續 등으로 선진국의 경제성장 둔화 豫想

— 공급은 非OPEC產油國 생산증대와 OPEC의 생산 쿼터 준수 곤란 등으로 여유 예상

	82	83	84	85
• 非OPEC공급량 (百萬B/D)	25.0	25.8	26.9	27.3

● 石油수요 회복세에도 油價인하압력 지속

— 油種間 가격차와 OPEC諸國의 재정난으로 減産割當量 준수곤란

— 非OPEC產油國들의 증산과 西方石油會社들이 재고방출 증대

— 現物油價 약세지속, 소비국의 인하압력등으로 85년초 油價인하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움.

	83	84	85
• 平均公示價(\$/B)	29.85	28.70	28.70

나. 石炭시장

● 石炭은 石油價하락 이후 국제교역량 감소에 따라 공급과잉현상 지속으로 價格약세 예상

Ⅲ. 85년도 에너지需給計劃

1. 國內經濟展望

● 物가안정과 함께 안정적 경제성장 지속

— GNP 7.5% 성장목표

— 物가안정 지속(도매물가 상승률 1-2%)

	84(추정)	85(전망)
經濟成長率(%)	7.5	7.5
(鑛工業성장률, %)	14.1	13.4
都賣物價상승률(%)	1.5	1-2
消費者物價상승률(%)	2.5	2-3
輸 出(億달러)	265	305
經常收支(億달러)	△14.0	△5-△7

● 重點施策

— 에너지, 資源 등 소비절약과 貯蓄증대노력 강화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증대 및 輸入절약

— 中小部品 공업육성 및 기술·설비투자 촉진으로 산업의 경쟁력 제고

— 經濟社會 各 분야의 균형발전과 능률 제고

2. 源別 에너지需給計劃

가. 總에너지수요

1985년 에너지需要展望

	單位	1984(暫定)			1985(計劃)		
			構成比(%)	增加率(%)		構成比(%)	增加率(%)
石 油	千배럴	194,887	52.3	1.9	200,948	50.4	3.1
無 煙 炭	千톤	23,917	20.9	10.4	24,563	20.4	2.7
有 煙 炭	"	12,971	15.9	34.7	15,337	17.6	18.2
水 力	GWH	2,357	1.1	△13.4	2,967	1.3	25.9
原 子 力	"	11,702	5.4	30.5	14,439	6.3	23.4
薪 炭	千톤	8,355	4.4	△ 1.6	8,221	4.0	△ 1.6
(電 力)	GWH	47,030	—	10.3	51,850	—	10.2
總 에 너 지	千TOE	53,896	100.0	8.4	57,404	100.0	6.5
海外依存度	%	75.8			77.3		

에너지 / GNP 비중推移

	80	81	82	83	84(暫定)	85(計劃)
GNP 성장률(%)	△ 5.2	6.2	5.6	9.5	7.5	7.5
에너지증가율(%)	1.5	4.4	△ 0.2	8.1	8.4	6.5
에너지 / GNP 비중 (TOE /80不變, 百萬원)	1,187	1,165	1,102	1,087	1,097	1,087
(前年對比증가율, %)	(8.2)	(△1.9)	(△5.4)	(△1.4)	(0.9)	(△0.9)

主要国別 에너지 / GNP 比重比較

(單位 : TOE / 80年, 千달라)

	73	74	75	79	80	82
美國	0.78	0.78	0.77	0.73	0.71	0.66
韓國	0.69	0.65	0.62	0.67	0.72	0.67
日本	0.51	0.56	0.53	0.37	0.35	0.31
西獨	0.57	0.54	0.49	0.36	0.34	0.32
프랑스	0.33	0.32	0.30	0.30	0.30	0.27
英國	0.47	0.45	0.44	0.41	0.39	0.37
台灣	0.59	0.58	0.62	0.67	0.67	0.60

〈資料〉 IEA 報告書, Energy policies and program in IEA.

● 85년 總에너지수요는 石油換算 57,404千톤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전망

	81	82	83	84	85
• 에너지증가율(%)	4.4	△0.2	8.1	8.4	6.5
• GNP 증가율(%)	6.2	5.5	9.5	7.5	7.5

● 에너지시장안정과 안정적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증가 추세가 8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賦存資源 부족으로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라 海外의존도는 77.3%로 전년대비 1.5% 증가 예상

	82	83	84(잠정)	85(계획)
• 海外의존도(%)	74.5	74.8	75.8	77.3

● 에너지/GNP비중은 1.09TOE/百萬원으로 전년대비 0.9% 향상

나. 石油

● 石油수요는 200,948천 배럴로 전년대비 3.1% 증가

82 83 84(잠정) 85(계획)

• 石油수요(千BBL) 181,168 191,294 194,887 200,948
(전년대비, %) (△0.6) (5.6) (1.9) (3.1)

● 脫石油電源開發 추진으로 石油依存度 감축

82 83 84(잠정) 85(계획)

• 石油依存度(%) 58.0 56.2 52.3 50.4
(發電부분) 76.9 65.3 46.5 39.6
(産業부분) 53.0 52.1 52.7 51.6

● GNP 단위당 石油集約도는 4.3% 개선

81 82 83 84 85

• 石油集約도 4.61 4.34 4.18 3.97 3.80
(BBL/80不變百萬원)
(전년대비, %) (△6.5) (△5.9) (△3.7) (△5.0) (△4.3)

● 가정연료 고급화와 特定産業製品的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가스보급 확대

82 83 84(잠정) 85(계획)

• LPG공급량(千배럴) 7,013 9,930 12,324 14,759
(LPG비중, %) (1.6) (2.1) (2.4) (2.7)

— 국민생활수준향상과 도시공해방지, LNG 공급 기반확충을 위한 都市가스 공급확대

82 83 84 85

• 都市가스공급량(千m³) 39 54 140 240
• 都市가스使用家口數(千世帯) 164 224 259 480

● 石油수요의 경질화 추세로 경질유비중 증대

82 83 84(잠정) 85(계획)

• 輕質유비중(%) 47.8 51.5 56.3 58.1

다. 無煙炭

● 무연탄수요는 24,563千톤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81 82 83 84(잠정) 85(계획)

• 無煙炭수요(千톤) 21,413 20,865 21,670 23,917 24,563
(전년대비, %) (2.8) (△2.6) (3.9) (10.4) (2.7)

石油類 油種別 需給計劃

(單位：千배럴)

	1983		1984(暫定)		1985(計劃)	
		增加率(%)		增加率(%)		增加率(%)
휘발유	4,622	△ 0.9	5,460	18.1	6,334	16.0
燈油	7,823	2.3	8,225	5.1	8,429	2.5
輕油	44,767	10.1	50,211	12.1	52,496	4.6
B - A油	1,969	△ 9.6	1,959	△ 0.5	1,949	△ 0.5
B - B油	829	△ 5.4	898	8.3	921	2.3
B - C油	88,024	△ 1.7	79,845	△ 9.4	78,821	△ 1.3
제트 A-1	3,563	9.8	3,683	3.4	3,966	7.7
제트 P-4	3,968	33.0	4,118	3.8	4,238	2.9
에너지油小計	155,568	2.5	154,399	△ 0.8	157,154	1.8
프로판	3,949	38.5	5,355	35.6	6,871	28.3
부탄	5,981	43.7	6,969	16.5	7,888	13.2
가스類小計	9,930	41.6	12,324	24.1	14,759	19.8
나프타	22,858	15.1	24,885	8.8	26,041	4.6
용제	953	88.0	833	△12.6	584	△29.9
아스팔트	1,985	△ 1.6	2,446	23.2	2,410	△ 1.5
非에너지油小計	25,796	15.2	28,164	9.2	29,035	3.1
合計	191,294	5.6	194,887	1.9	200,948	3.1

● 家庭·商業用 연탄수요는 21,818千톤으로 3.3% 증가

	81	82	83	84	85
● 家庭·商業用 수요 (千톤)	18,543	17,887	18,960	21,120	21,818
(전년대비, %)	(2.8)	(△3.5)	(6.0)	(11.4)	(3.3)
● 家庭·商業用 연탄의 輸入炭 혼합비율 증가					
		83	84	85	
● 輸入炭混合量(千톤)	1,043	1,968	2,826		
(혼합비율, %)		(5.5)	(9.3)	(13.0)	

無煙炭 需給計劃

(單位：千톤)

	1984(暫定)		1985(計劃)	
		增加率(%)		增加率(%)
産業	410	△20.8	400	△ 2.4
家庭·商業	21,120	11.4	21,818	3.3
公共·其他	153	29.7	145	△ 5.2
發電	2,234	7.7	2,200	△ 1.5
計	23,917	10.4	24,563	2.7

라. 有煙炭

● 유연탄 수요는 15,337千톤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

	81	82	83	84	85
● 有煙炭수요(千톤)	7,434	8,503	9,633	12,971	15,337
(전년대비, %)	(47.7)	(14.4)	(13.3)	(34.7)	(18.2)

● 脫石油電源開發추진에 따라 유연탄 發電증대

	82	83	84	85
● 發電用 유연탄(千톤)	0	546	3,671	5,514
(전년대비, %)		(-)	(572.3)	(50.2)

● 산업용 有煙炭 수요는 9,823千톤으로 5.6% 증가

	82	83	84	85
● 산업용 有煙炭(千톤)	8,503	9,087	9,300	9,823
(전년대비, %)	(13.0)	(6.9)	(2.3)	(5.6)

마. 電力

● 電力수요는 51,850GWH로 10.2% 증가 전망

□ 政策資料 □

	82	83	84	85
• 電力수요 (GWH)	37,880	42,620	47,030	51,850
(전년대비, %)	(6.9)	(12.5)	(10.3)	(10.2)

● 脫石油電源開發 추진으로 石油發電비중 감소

	82	83	84	85
• 石油發電비중(%)	80.5	67.3	49.1	40.8
• 石炭發電비중(%)	6.1	8.8	24.7	30.1
• 原子力비중(%)	8.8	18.3	21.8	24.1

	82	83	84	85
• 에너지/鑛工業 (부가가치 (TOE/百萬元 (80不變))	1.36	1.31	1.20	1.10

● 산업용 有煙炭 代替추진

	83	84(잠정)	85(계획)
• 有煙炭소비량(千톤)	9,087	9,300	9,823
(증가율, %)	(6.9)	(2.3)	(5.6)
• B-C油代替量(千배럴)	10,555	9,744	10,688
• 節減額(百萬元)	165	122	133

● 에너지절약 施設投資 지속적 추진

	81	82	83	84(잠정)	85(계획)
• 投資額(億원)	968	1,298	1,025	1,173	2,277
• 節減기대효과 (億원)	489	679	540	617	1,198

3. 部門別 에너지需要展望

가. 産業부문

● 鑛工業成長(13.4%)에 따라 전년대비 3.8% 증가 전망

	83	84(잠정)	85(계획)
• 産業부문 에너지증가율(%)	6.1	4.9	3.8
• 鑛工業성장률(%)	10.8	14.1	13.4

● 에너지소비절약 기반구축에 따라 産業부문 에너지集約度 감소

나. 輸送부문

● 차량증가(증가율 19.0%)에 따라 전년대비 11.0% 증가

● 외국과 비교할때 1인당 輸送用 에너지 수요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증대할 가능성 높음.

부문별 에너지 需要展望

(單位: 千TOE)

	1984(暫定)			1985(計劃)		
		構成比(%)	增加率(%)		構成比(%)	增加率(%)
産業	18,991	42.0	4.9	19,704	41.7	3.8
輸送 ¹⁾	6,640	14.7	17.7	7,226	15.3	11.0
家庭·商業	16,632	36.7	9.3	17,387	36.8	4.5
公共·기타	2,996	6.6	6.5	2,928	6.2	△ 2.3
最終에너지計	45,259	100.0	8.7	47,245	100.0	4.4

註: 1) 증가율은 國際빙커링을 제외한 國內輸送用에너지 증가율임.

주요국의 産業部門 에너지投入比重

	美國	西獨	英國	日本	프랑스	台灣	韓國			
							82	83	84	85
에너지 / 鑛工業 附加價值 (TOE/千달러(80))	0.46	0.22	0.27	0.30	0.23	0.84	0.83	0.79	0.73	0.67
産業部門비중 (%)	28.0	35.8	31.8	49.4	34.8	56.5	43.7	43.5	42.0	41.9

註: 외국은 82년 기준임.

(資料) IEA報告書(84. 9)

주요국의 1인당 輸送用 에너지消費

	美 國	英 國	西 獨	日 本	프랑스	台 灣	韓 國			
							82	83	84	85
1人當소비량 (TOE)	1.84	0.60	0.64	0.39	0.62	0.18	0.14	0.14	0.16	0.18
輸送部門비중 (%)	33.4	24.9	21.9	20.1	25.8	15.0	12.9	13.2	14.7	15.4

註: 외국은 82년 기준임.
(資料) IEA報告書(84. 9)

주요국의 1인당 家庭, 商業用 에너지消費

	美 國	西 獨	英 國	日 本	프랑스	台 灣	韓 國			
							82	83	84	85
1人當소비량 (TOE)	1.61	0.83	0.79	0.50	0.75	0.29	0.36	0.38	0.41	0.42
家庭·商業부문 비 重(%)	29.5	28.2	32.8	25.6	31.1	24.3	36.0	36.6	36.7	36.8

註: 외국은 82년 기준임.
(資料) IEA報告書

다. 家庭, 商業부문

● 家庭, 商業부문 에너지수요는 전년대비 4.5% 증가

	82	83	84	85
● 家庭, 商業에너지증가율(%)	△1.4	6.3	9.3	4.5
● 民間消費支出증가율(%)	4.6	6.6	6.0	5.0

● 家庭, 商業부문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계속 증대할 가능성 높음.

4. 에너지輸入 計劃

區 分	1984(暫定)			1985(計劃)		
	物 量	單價(달러)	金 額 (百萬달러)	物 量	單價(달러)	金 額 (百萬달러)
石 油 ¹⁾ (千배럴)	201,301		5,815	216,036		6,163
• 原 油(千배럴)	199,828	29.04	5,805	206,703	28.8	5,953
內 需 用(千배럴)	178,819	29.12	5,207	194,220	28.8	5,598
賃 加 工 用(千배럴)	21,009	28.44	598	12,483	28.4	355
• 石 油 製 品(千배럴)	22,482	27.04	608	21,816	25.9	565
石 炭(千 噸)	13,741	57.20	786	18,636	56.77	1,058
우 라 늄(톤 U)	134	—	157	114	—	102
計 (百萬달러)		6,758			7,323	
對 輸 入 比 重(%)		24.5			23.8	

註: 1) 石油은 原油中 내수용과 石油製品的의 합계임.

□ 政策資料 □

- 에너지輸入價格 약세지속 전망
- 에너지輸入額 전망

● 總輸入額中 에너지輸入比重 감소

	82	83	84(잠정)	85(계획)
에너지輸入額(億달러)	73.0	65.9	67.6	73.2
국 제 수 지(億달러)	△26.5	△16.1	△14.0	△5-△7

	82	83	84(잠정)	85(계획)
● 總輸入額(億달러)	242	262	276	308
● 에너지輸入비중(%)	30.2	25.2	24.5	23.8

□ 유조선동향 □

지난해 페灣서 商船피습 최고기록

지난 1980년 가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10여척의 선박이 야트알아랍水路 및 그 海域에 억류된 이래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선박이 지난해 페르시아만에서 공습을 받았다.

처음으로 이란의 하르그섬 원유터미널을 이용하는 유조선(터미널설비 자체에 대한 공습은 아니지만) 및 카타르반도 近海의 선박들에 대한 公式的 공습이 시작된 것이다.

1984년에 확인된 피습선박은 모두 61척으로, 3척은 수뢰를 맞았고, 3척은 좌초 내지는 충돌하였다. 그 전까지의 피습선박 누계가 억류선박을 제외하면, 약 45척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해의 피습기록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로이드해운정보 소식통은 밝혔다.

지난해 피습으로 사망한 선원은 적어도 40명에 달하며, 1983년말까지의 사망자 누계는 70명이었다. 그러나 보고되지 않은 사망자도 상당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 해 3월말까지만 해도 상선에 대한 공습은 페르시아만 北端에 위치한 이란의 반다르호메이니항 近海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라크는 하르그섬 기항 유조선에 대해 계속 위협을 하여 왔으며, 새로운 프랑스제 시페르 에탕다르 전투기의 도입으로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지난 해 3월 27일에는 85,123dwt급 그리스 유조선 Filikon L號가 쿠웨이트의 미나알아마디항을 출발하여 시실리로 가는 도중 하르그 남서쪽 85마일 海上에서 액조세미사일에 격퇴되었다.

선체에 명중된 미사일은 폭발하지 않았으며, 美海軍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이 제거된 본선은 航海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달이 채 못되어 51,

793톤급 파나마 유조선 Rover Star호가 하르그섬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공습을 받았다.

공습은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에 계속되었다. 4월 25일에는 Safina Al Arab호(357,100톤) 5월 7일에는 Al Ahood호(117,710톤)가 공격당했는데 2척 모두 하르그섬에서 원유를 선적하였다.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란은 반격을 시도하여 미나알아마디에서 揚荷를 마치고 페르시아만 중부 바레인으로부터 북쪽으로 8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 중인 쿠웨이트 유조선 Umm Casbah호(79,999톤)를 공격하였으나,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하였다.

年末에 이르러 주로 탱커인 24척의 선박이 하르그섬 근처 또는 항해중에 공격을 받았다. 페르시아만의 북단에서 계속된 공습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또는 페르시아만의 다른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21건의 공습이 있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은 이라크를 지지하고 있으며, 페르시아만의 국가들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란이나 이라크의 행위를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12월에 접어들기 이전 약 6주동안은 소강상태였으나, 12월에 들어서면서 공격이 재개되었다. 이로 인하여 두 나라가 새롭고 보다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었다.

그리스의 유조선 Ninemia호(240,830톤)는 두차례의 공격을 받았다. 그 중 한번은 카타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란產 원유선적 후 예인되어 출항하는 도중이었으며, 이 지역은 이라크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었던 곳이다.